

# 개막전부터 내리 1위... 창단 2년 만에 '쓱' 우승 신화

### SSG, 정규리그 정상축배... KBO 역사상 첫 기록 4년 만에 통산 5번째 한국시리즈 왕좌 노려



SSG 랜더스가 12년 만에 정규시즌 정상에 섰다. 'SSG 랜더스'로 간판을 바꿔 달고 두 번째 시즌에 일군 우승이다.

시즌 개막부터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정규시즌 우승에 이른 것은 올 시즌 SSG가 처음이다.

정규시즌 2위를 달리던 LG 트윈스는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3-8로 패배했다.

LG가 패배하면서 SSG의 정규시즌 우승 확정 매직넘버 '1'이 소멸됐다. 이날 경기를 치르지 않은 SSG가 88승 4무 49패를 기록 중인 가운데 이날 패배로 84승 2무 53패가 된 LG는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겨도 순위를 뒤집을 수 없다.

우승 확정 매직넘버 '1'을 남긴 상황에서 지난 3일 최하위 한화 이글스에 발목이 잡혔던 SSG는 경기가 없는 이날 앞서서 우승을 확정하게 됐다. 5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을 위해 이날 오후 잠실로 이동한 SSG

선수단은 원정 숙소에서 정규시즌 우승 확정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개막 10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꺾은 SSG는 시즌 내내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은 끝에 일명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일궜다. KBO리그 역사상 처음 나온 사례다.

SSG는 시즌 막판 주춤하면서 2위 LG의 맹렬한 추격을 받았지만, 고비를 넘어섰다.

SSG가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것은 전신 SK 와이번스가 2010년 정상에 선 이후 12년 만이다. SK 시절까지 합해 2007, 2008, 2010년에 이어 통산 4번째다.

2021년 1월 말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해 재창단한 SSG는 재창단하고 두 번째 시즌에 정규시즌을 제패했다.

정규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쥔 SSG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통산 5번째 한국시리즈 왕좌를 노린다. 아울러 2010년 이후 12년 만에 통합 우승에 도전한다.

SSG는 남은 정규시즌 3경기에서 구단 한 시즌 최다승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현재 2019년 작성한 구단 한 시즌 최다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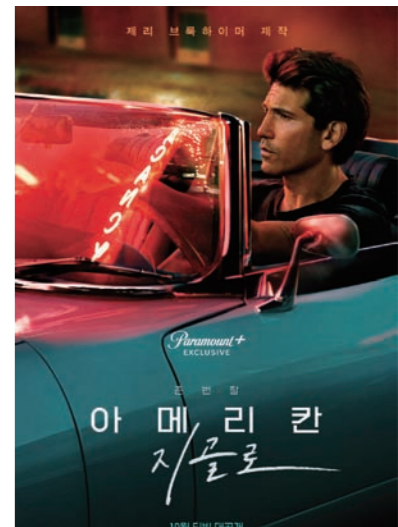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 초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SSG 최정(중)이 동점 솔로홈런을 날린 후 덕아웃에서 기뻐하고 있다.

타이를 이룬 상태다. SSG가 2승을 더하면 2000년 현대 유니콘스(9승 2무 40패), 2016년 두산 베어스(93승 1무 50패), 2018년 두산(93승 51패)에 이어 역대 4번째로 90승 고지를 밟는 팀이 된다. 이날 패배로 2위가 확정된 LG는 플레이

오프에 직행한다. 5위 KIA(68승 1무 71패)는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 매직넘버를 '2'로 줄이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는 KT 위즈가 삼

성 라이온즈를 7-3으로 눌렀다. 5연승을 질주한 KT는 78승 2무 59패를 기록, 이날 경기를 치르지 않은 4위 키움 히어로즈(79승 2무 61패)와의 격차를 0.5 경기로 벌리며 3위를 유지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아메리칸 지골로'가 13일 공개를 확정된 가운데 비기닝 영상을 첫 공개했다. 뉴스

## 섹시 스릴러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 13일에 돌아온다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가 선보이는 인성 영화 리메이크 시리즈 '아메리칸 지골로'가 13일 공개를 확정된 가운데 비기닝 영상을 첫 공개했다.

제리 브룩하이머 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메리칸 지골로'는 살인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전직 지골로 '졸리언 케이(존 번탈)'가 그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섹시 스릴러다. 할리우드 배우 리차드 기어 주연으로 1980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더 깊이 있는 스토리로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주인공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 나가며 사건의 진실을 찾아간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주인공과 밤을 보낸 여성이 함께 있는 동안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졸리언 케이'는 범인으로 지목돼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는 당시 자신을 체포했던 형사로부터 진짜 범인이 잡혔다며 그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듣는다. 작품의 스타일리쉬한 미장센부터 밀도 높은 스토리 라인,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돌아온 존 번탈의 연기면 신까지 담긴 영상은 새로운 형태의 멜로 장르를 기다려 온 팬들에게 기대를 더하게 하고 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AL 시즌 최다 62호 홈런... 저지의 신기록은 '진행형'

### 텍사스와 더블헤더 2차전서 1회 솔로포... 매리스 기록 뛰어 넘어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애런 저지(30)가 시즌 62번째 홈런을 때려내며 아메리칸리그(AL)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다.

저지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2 MLB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초 첫 타석에서 좌월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다.

그는 상대 선발 제루스 티노코의 시속 88.4마일(약 142.2km)짜리 슬라이더를 공략해 왼쪽 담장을 넘겼다.

지난달 2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61호 홈런을 날린 이후 6경기 만에 때려낸 62호 홈런이다. 저지는 팀 선배인 로저 매리스가 1961년 세운 종전 AL 한 시즌 최다 홈런이자 양키스 소속 최다 홈런 기록(61홈런)을 61년 만에 갈아치웠다.

양키스 선수들은 홈 플레이트로 나와 대기록을 작성한 저지와 포옹을 나누며 축하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저지는 9월 21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 60홈런 고지를 밟아 한 시즌에 60홈런을 넘긴 MLB 역대 6번째 타자로 이름을 날렸다. 8일 뒤 토론토 원정에서 매리스의 기록에 타이를 이룬 저지는 양키스의 161

번째 정규시즌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 AL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다. MLB에서 60개 이상의 홈런을 친 타자는 저지 이전에 5명 있었다. 베이브 루스(1927년-60개), 로저 매리스(1961년-61개), 새미 소사(1998년-66개-1999년-63개-2001년-64개), 마크 맥과이어(1998년-70개-1999년-65개), 배리 본즈(2001년-73개) 등 5명이 한 시즌 6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

소사와 맥과이어, 본즈는 저지보다 더 많은 홈런을 때려냈지만, 이들 셋은 모두 급지약물 복용 이력이 밝혀져 빛이 바랬다.

야구 팬들은 '청정 타자' 저지의 홈런 신기록을 '진정한 기록'으로 여긴다. AL 한



애런 저지가 5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1회 초 62호 홈런을 때려내며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AP/뉴스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저지의 리그 최우수선수(MVP) 수상 가능성

도 커졌다. 올 시즌 뒤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저지의 몸값도 폭등하고 있다. 스키아데일리/뉴스

##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